



군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의회

[2023. 4. 14.(금) 11:00]
완도읍 신홍사

인사말씀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완도군의회 허궁희 의장입니다.

이처럼 완연한 봄날에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 『제16회 장보고 평화의 종 타종식』을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함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신홍사 법공 주지스님, 완도군의회 최정욱 의원님, 추강래 완도문화원장님, 장보고기념사업회 곽태웅 전남지부장님, 장보고연구회 박봉옥 이사장님과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를 위해 애쓰신 신홍사 김동교 신도회장님과 신도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주변은 극동의 화약고로 불릴 만큼 긴장감이 감도는 지역으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돼 있습니다.

제16회 장보고 평화의 종 타종식



완도군의회

이러한 상황에서 신라시대에 동북아시아 불교문화 전파와 해상교역 질서를 바로잡고 평화를 정착시킨 장보고 대사의 업적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일본 불교의 최초 대사인 엔닌 스님의 생일을 맞아 시작한 한·중·일 불교우호교류가 이제 열여섯 개의 나이테를 지닌 튼실한 우정의 나무로 자라난 만큼 앞으로 더 큰 결실로 이어지길 기원합니다.

완도군의회도 한반도 평화를 다지고, 인류 공존과 번영의 길을 여는 불교계의 노력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16회 장보고 평화의 종 타종식』을 봉축드리며, 부처님의 가피로 함께하신 모든 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고, 더 나아가 국가 간 평화와 세대 간 화합의 밝은 빛으로 이어지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